

내실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온 힘'

전북교육청, 주요개정안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내실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2020 전북방과후학교 주요개정안을 중심으로 운영 계획 안내에 나선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와 학교장, 위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과후학교 정책 방향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방과후학

교 위탁업체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지역사회 연계 실천사례와 개선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6일에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방과후지원센터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7일에는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방과후 위탁업체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오는 20일과 21일에는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국공·사립 초·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교감,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오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기관의 자율성 담보 △학교·강사·위탁업체 등의 업무 경감과 편의 제공 △청렴서약서·보안각서 등 청렴도 강화 장치 마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 정리,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방과후학교 중점사업 추진계획 수정 등이 있다.

특히 프로그램별 감사 계약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0% 범위로 확대, 천재지변 등으로 학교 휴강 시 보강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령개정 사항과 강사 및 업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면서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활동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문화예술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예비 문화예술인과의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2019학년도 예비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예술인들의 성평등 관점에서 올바른 예술활동 및 성폭력예방을 위한 역할 강화와 성인 지각수성 향상을 통해 건강한 예술인을 배출하고자 함이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이번 교육은 예비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특성을 이해하고, 포인식개선을 통해 상호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서로가 존중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을 비롯한 이성미 학생처장,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 국제교류교육원 김보현 팀장 등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출국하여 미국서부 지역 대학을 방문 중이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위한 발걸음 '분주'

군산대 광병선 총장 일행, 미국 타코마시 &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 방문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을 비롯한 이성미 학생처장,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 국제교류교육원 김보현 팀장 등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출국하여 미국서부 지역 대학을 방문 중이다.

지난 1일에는 보이시주립대학을 방문하여 학생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기존의 협약을 수정 체결했고, 5일에는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타코마시(시장 빅토리아 우더즈: Victoria Woodards)와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총장 이반 허렐: Ivan Herrell)를 방문하여 국제교류 협력 저변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병선 총장을 비롯한 군산대 방문단은 타코마시를 방문하여, 올해 4월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 총장과 타코마 시장의 군산시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어학연수프로그램,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 내 한국어 과정 개설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군산시와 타코마시는 40년 동안 자매결연 도시로서 우호를 맺어왔다. 또한 타코마커뮤니티 칼리지와 2009년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5년까지 학생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광병선 총장은 "급변 방문을 계기

로 상호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타코마시는 미국 서부 워싱턴 주 소재, 시애틀 남쪽 40km지점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목재가공업과 철도 및 해상 교통의 요지로 중요한 도시이고, 미국 서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애틀의 위성도시이다.

한편,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는 1965년 설립된 2년제 대학으로 9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중 450여 명은 국제학생으로, 56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간 호학과, 경영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량이 특히 우수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대-제주대-조선대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와 5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학본관에서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교육혁신본부 황인수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호남·제주권역의 3개 대학이 선도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개 대학은 오는 겨울방학 중 제주대학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Local Learning Project라는 명칭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 교육

도교육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일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과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2월 11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도내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0 일반고 '자유롭게·신나게·감동적인' 프로젝트를 찾아가는 설명회를 갖고 전 교원의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신·감'이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배움중심 수업으로 신나게 활동해, 함께 성장하는 감동적인 일반고를 만들어 '한명도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다.

주요 내용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학생 배움중심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지원 ▲기초학력 더딤학생 지원 ▲학교내 전문직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오운도

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과목 확대 지원 ▲진로중점 학교 확대 운영 지원 ▲소수학생 선택과목 개설 확대 지원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예체능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업방법 개선으로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0일 일반고 96개교 교장 또는 교감, 총괄 업무담당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소셜임팩트 해커톤 융합 연합 캠프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가 소셜 벤처 분야 대학 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최근 양교 공동으로 소셜임팩트 해커톤 캠프(SOCIAL VENTURE ENTERPRISE ACADEMY)를 개최했다.

원광대와 중앙대 LINC+ 사업단이 주관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후원한 가운데 원광교 서울회관과 중앙대 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양교의 우수 창업팀 간 융합을 통해 지역 및 사회문제 발굴을 위한 소셜미션 부여와 해결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교는 연합캠프를 위해 지난달부터 소셜미션에 관심 있는 창업 동아리 및 예비 창업자 팀을 모집해 연합팀 9개

를 선발했으며, 이번 캠프에서는 아이디어 개발, 고객 개발 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20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될 후 발표 평가로 우수 팀을 선발해 시상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버려지는 한약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시멘트내용'을 제안한 한약팀이 수상했으며, '커피박을 인테리어 제품으로 업사이클링'을 제안한 커피피어팀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을 제안한 BABB A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한, '스마트 펫 수거기'의 페라 페티, 'e-영수증 발급확대를 통한 종이영수증 최소화 전략'을 발표한 e-영수증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최근 전주시와의 교육협력사업 관련 협의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19년 제3차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주교육 발전과 교육재정 확충 도모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지역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화-전주시청-우리 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주

관 교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자료개발을 통해 교육공동체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항근 교육장은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을 위해서는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민·관 인사들은 물론 전주시의회-전주시청과 적극 소통해 의무 재원 유지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